

다 품은 '박병호'

올 프로야구 4관왕·MVP 이어 골든글러브 2연패
 넥센 투수 손승락, 생애 첫 영예...KIA, 수상자 없어



‘4관왕’ 박병호(넥센)가 프로야구 최우수선수에 이어 골든글러브 2연패에 성공했다. 박병호는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96.3%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1루수 부문 황금장갑을 품에 안았다. 총 유효표 323표 중 311표를 씌우며 2년 연속 시상식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박병호는 올 시즌 홈런(37개), 타점(117개), 득점(91점), 장타율(0.602) 등 4개 부문 공격 부문 타이틀을 휩쓸며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타자로 우뚝 섰다. 2002년 마해영(지명타자)이 작성한 역대 최고 득표율(99.26%) 기록은 깨지 못했다. 박병호는 한국스포츠사진기자협회가 선정하는 골든 포토상도 수상했다. 박병호가 두산과의 준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9회 극적인 동점 3점포를 터트린 뒤 환호하는 장면은 최고의 한 컷이 됐다. 넥센 돌풍의 또 다른 주역 마무리 투수 손승락도 황금장갑을 끼면서 1994년 정명원 이후 19년 만에 마무리 투수

수상자가 됐다. 손승락은 격전지로 꼽혔던 마운드에서 97표를 획득하면서 배영수(삼성·80표), 세든(SK·79표)을 따돌리고 처음으로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다. 강정호도 267표(82.7%)를 얻어 유격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챙기는 등 넥센은 3명의 골든글러브 수상자를 배출했다. 올 시즌까지 SK의 내야를 수상했던 2루수 정근우(한화)와 3루수 최정(SK)도 나란히 세 번째 골든글러브를 챙겼다. 정근우는 260표, 최정은 229표를 획득했다. FA 몸값 기록을 세운 포수 강민호는 178표(득표율 55.1%)로 3년 연속 골든글러브 주인공이 됐다. 김동수(현 넥센 배터리 코치·1993~1995년) 이후 포수로는 18년 만의 3년 연속 수상이다. 개인 4번째 골든글러브이기도 하다. 또 다른 격전지였던 외야는 롯데 손아섭, 삼성 최형우, LG 박용택이 점령했다. 손아섭은 최다 안타 1위(172개), 타격 2위(타율 0.345), 도루 2위(36개)를 달리며 3년 연속 골든글러브를 썼다. 최형우도 홈런(29개)과 타점(98개) 2위의 기록으로 2011년에 이어 개인 통산 두 번째 골든글러브를 가져갔다. 팀의 11년 만의 가을 잔치를 이끈 박용택은 골든글러브와 함께 페어플레이상까지 수상했다. 베테랑의 힘을 보여준 타격왕 이병규(LG)는 지명타자 부문에서 통산 7번째 수상의 기쁨을 맛봤다. 이번 수상으로 이병규는 한대화·양준혁·이승엽(이상 8회)에 이어 김동수와 통산 최다 수상 공동 2위가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소원 품 '양현종'

동성고, 야구대제전 4강 진출...모교 유니폼 입을 생각에 싱글벙글

KIA 투수 양현종이 소원성취를 했다. 양현종은 10일 포항행 버스에 올랐다. 11일 오전 11시 포항구장에서 예정된 야구대제전 동성고와 세광고와의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야구 대제전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선수들은 물론 전·현직 프로야구 선배들이 함께 하는 경기. 동성고는 지난 8일 경남고와의 8강전에서 5-2 승리를 거두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덕분에 모교 유니폼을 입고 싶었던 양현종의 소원이 이뤄졌다. 동성고는 지난 6일과 8일 각각 대회 16강전과 8강전을 치렀다. 6일은 차영화·김동재 코치 돌기 일일호프가 열린 날이었고 8일은 선배 김진우의 결혼식이 진행되면서 양현종은 마음만 바빴다. 앞서 양현종은 “동성고 경기에 참가하고 싶어서 꼭 한 번만 더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다”며 동성고의 준결승행을 간절하게 바랬었다. 그리고 소원대로 8일 경기가 승리로 끝나면서 양현종이 ‘동성고’라는 이름으로 다시 그라운드에 서게 됐다. 양현종은 포항 출발에 앞서 “내 유니폼도 준비되어 있다”며 소풍을 가는 학생처럼 신이 났다. 유니폼을 입을 생각에 뿌듯하다며 기뻐한 양현종이지만 막상 경기에는 나서지 못했다. 며칠 전 라식 수술을 받은 만큼 그라운드가 아닌 덕아웃에서 모교의 승리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동성고에서 후배들과 함께 겨울을 날 생각이다. 양현종은 “후배들이 대회에 나가면 경기도 챙겨보려고 하고 살펴보려고 하고 있다. 이번 주까지는 일단 휴식을 취

하고 다음 주부터 모교에서 운동을 할 생각이다”며 “애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면 오히려 내가 많이 배우게 된다. 애들 단점 같은 게 보이면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내 야구도 생각하게 된다. 또 후배들이 보고 있으니 더 열심히 하게 된다. 게으르게 안 하려고 하면서 내가 더 발전하는 기분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준결승을 위해 KIA 김주형·김다현·고영우도 동성고 후배들과 함께 10일 길을 나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BO '외국인 선수 3명 보유, 2명 출전'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0일 팀별 외국인 선수 보유 수를 확대함에 따라 '외국인 타자 시대'가 다시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KBO는 이날 이사회에서 각 구단 외국인 선수 출장 인원을 현행 '2명 보유, 2명 출전'에서 '3명 보유, 2명 출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1군에 합류한 NC는 2014년까지 '4명 보유, 3명 출전'이 가능하며 2015년에 1군으로 진입하는 KT는 2016년까지 외국인 선수 4명을 보유한다. 10구단 시대 선수 부족에 따른 경기력 저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KBO 이사회는 “투수과 야수과 구분하여 한 포지션에 보유 인원 전원을 등록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연합뉴스

광주FC, 허리 힘 키웠다

2014 신인 드래프트, 미드필더 등 5명 선발

광주 FC가 2014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허리를 강화했다. 광주가 10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열린 신인 드래프트에서 인천대 미드필더 이찬동(20) 등 신인선수 3명과 우선지명 1명, 자유선발 1명 등 5명을 선발했다. 드래프트 2순위로 가장 먼저 호명이 된 이찬동(3년)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183cm, 80kg의 다부진 체격을 바탕으로 한 몸싸움이 좋다. 서귀포중-청주 대성고를 거쳤다. 이찬동은 “번의 지명이라도 가서 잘하면 되니까 뿌듯하긴 하다고 생각했다. 많이 부족하든 높은 순위에서 뽑혀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기분이 좋았다”며 “프로에 빨리 도전하고 싶었다. 또 정말 좋아하는 형(송승민)과 같은 팀에 가게 돼서 더 좋다. 투지가 좋고 근성이 좋다. 광주에서 많은 기회를 얻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3-4 순위에서 지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광주는 5순위로 인천대 졸업생 앞두고 있는 송승민(21·MF)을 낙점했다. 188cm에 77kg의 장신인 송승민은 뛰어난 체격 조건과 함께 강한 압박과 장악력이 장점이다. 경희중-경희고를 거쳤다. 송승민은 “지명을 받아서 정말 좋다. 많은 선수들 중에서 선택을 받았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프로에 가서는 중요하게, 독하게 마음 먹고 있다. 넓은 시야를 바



탕으로 게임을 읽는 능력이 좋다. 최선을 다해 좋은 선수로 살아남겠다”고 말했다. 광주대 수비수 김영빈(22·4년)은 6순위로 선택을 받았다. 김포 통진중-서울체고 출신인 김영빈(182cm 78kg)은 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인 플레이, 경기조율 능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2013 춘계 대학연맹전 우수 주역으로 최우수 수비수를 수상했다. 김영빈은 “어떤 상황에서든 침착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열심히 해서 시합에서 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광주의 수비를 튼튼히 하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광주는 자유선발로 아주대 미드필더 권수현(22), 우선지명으로 금호고 출신의 홍이대 미드필더 홍태곤(21)을 선택하는 등 5명의 새얼굴을 영입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겨울 기차여행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www.daewontour.com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대원빌딩 5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 각 역에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광주역 062)525-4835 광주송정역 062)941-3278

남이섬
 크리스마스에 떠나는 남이섬 기차여행 (12월24일)

시간	일정
00:05	광주역출발/가평역 도착
07:00	남이섬/김유정문학촌관광
11:40	춘천소양댌 관광
13:10	춘천먹거리 자유중식
21:53	춘천역 출발/광주역 도착

 1인당 성인 79,000원
 개인경비 소아 59,000원

동해일출
 동해 추암 촛대바위 일출 기차여행 (12월31일)

시간	일정
22:00	광주역출발/동해역 도착
06:40	추암 촛대바위 새해 일출
09:00	천곡동굴 관광/죽서루 관광
12:10	묵호어시장 자유중식
22:30	동해역 출발/광주역 도착

 1인당 성인 99,000원
 개인경비 소아 70,000원

태백산
 태백산 눈꽃 열차 (1월 매주 금요일)

시간	일정
21:45	광주역 출발/태백역 도착
06:30	태백산 등반 및 관광
12:00	하이원스키장 곤도라 탑승
22:05	고한역 출발/광주역 도착

 1인당 성인 85,000원
 개인경비

정동진
 정동진 일출 열차 (1월 매주 금요일)

시간	일정
21:45	광주역출발/태백역 도착
06:30	정동진 일출 및 관광
12:00	하이원스키장 곤도라
22:05	고한역 출발/광주역 도착

 1인당 성인 85,000원
 개인경비

하이원 스키장
 하이원 스키장 시즌버스 매일 왕복

시간	일정
03:00	영주체육관 주차장
03:05	신세계 백화점 육교 밑
03:10	문화예술회관 육교 밑
08:00	하이원 스키장 도착
16:30	하이원 스키장 출발
21:30	광주도착

 1일 왕복요금 50,000원
 리프트카정비(탈주중60%, 주말 50%) 할인적용